

현시기 평화수호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진재경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념원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인류의 이러한 지향과 열의는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그러나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침략과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강권과 패권주의정책,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파괴, 위협당하고있으며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이 심히 억제당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지만 그것은 바라거나 구걸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신년사》 2014년 1월 1일 단행본 18페이지)

평화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으며 오직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평화수호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반제반전투쟁이다.

평화수호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지키고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의 근본담보가 있다.

현시기 평화수호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변화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침략수법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그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지어 무력으로 자주의 길로 나가는 나라들을 압살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권전복을 시도하면서도 그렇고 무력행사에 의한 공공연한 침략을 감행하면서도 《평화보장》과 《민주주의질서수립》에 대해 떠들고있다.

평화보장은 명실공히 자주권존중에 있다.

자주권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들어쥐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이 《평화보장》과 《민주주의질서수립》을 떠들 때마다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인민들이 피를 흘리는것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제에 의해 감행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그 뚜렷한 실례이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현상이 그치지 않고있는것으로 하여 나라의 정치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잠겨 마음편히 살지 못하고있다.

현실은 평화수호투쟁을 떠나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없으며 새 세기 사회경제발전목표도 달성할수 없고 온 세계의 자주화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 나라의 정치체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뜯어

고치려는것은 자주권존중과 평화보장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평화보장》, 《민주주의질서수립》은 침략과 간섭의 대명사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보장》과 《민주주의질서수립》타령에는 침략전쟁, 간섭이 뒤따른다는것을 명심하고 그들의 교활한 침략수법에 절대로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에 강경히 맞서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행위에 겁을 먹고 물러서면 그들은 더욱 오만하게 날뛰다. 평화를 지향하는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혁명적으로 대처해나갈 때 그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좌절시킬수 있다.

현시기 평화수호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랭전의 종식》으로 마치도 완화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것처럼 떠벌였지만 제국주의가 살기등등하여 살아있는 이상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인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능히 막을수 있으며 평화를 유지할수 있다.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이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 제국주의자

들의 도발책동에 단호히 대처해나갈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침략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는것은 군사적우세를 차지하여 다른 나라 군대와 인민들속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자기 힘이 강할 때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이겨내고 침략세력과 맞서싸우겠다는 용기도 생기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위적국방력이 강한 나라를 감히 어찌지 못한다.

2013년 10월 한달동안에만도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에 맞서 나라의 방위력과 지역적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려는 발전도상 나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란은 미제의 가증되는 제재와 위협에 맞서 자위적국방공업발전에 힘을 넣었으며 인디아, 쿠바, 베네수엘라, 케니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무력의 현대화에 힘을 넣었다.

평화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나라와 인민은 마땅히 군사를 중시하고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현시기 평화수호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평화수호투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단결에 있다. 단결을 떠나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수호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에 위치하고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먹어치우는 방법을 택하고있다.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개별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위협과 무력행사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력량이 단결되는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제국주의반동들은 평화애호력량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별의별 모략과 음모를 다 꾸민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것은 시대와 인류앞에 나서는 공동의 과제이다.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서로 련대하고 힘을 합칠 때 그 힘은 백배로 강해지게 된다. 진보적나라들이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단결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얼마든지 짓부셔버리고 평화를 수호할수 있다.

반제자주력량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취약성을 똑바로 보고 그들의 허장성세에 겁을 먹지 말아야 하며 단결하여 반전평화옹호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현시기 평화수호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평화보장과 직결되어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곧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우리 인민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며 귀중히 여긴다. 우리 인민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세월 전쟁의 위험속에서 언제 한번 평화롭게 살아본적이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전역에서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야합하여 위험천만한 북침핵시험전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 남조선과 일본 등 조선반도주변에 핵항공모함을 비롯하여 방대한 미군기동타격무력이 집중전개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주도의 전쟁연습들이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특히 미제는 2013년 10월에 남조선피뢰들과 그 무슨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핵으로 한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을 고안해냈으며 2013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남조선피뢰들과 야합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인 《맥스 썬더》를 벌렸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침예한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재발하지 않은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전 기간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여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것과 함께 언제나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뿐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한데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앞으로도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전쟁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류의 평화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